

腹痛의發生部位別病理에關한考察

韓 圭 彦

I. 緒 論

腹痛은 臨床上 흔히 나타나는 症狀으로서 腹部內에는 肝·膽·脾·腎·大小腸·膀胱·胞宮 等의 臟腑와 手足三陰·足少陽·足陽明·衝任·帶脈 等 經脈이 循行하고 있다. 3. 13)

西醫學에서는 腹部를 右上·右下·左上·左下⁴⁹⁾의 四種 또는 髀肋部·上腹部·臍部·腸骨部·下腹部·鼠蹊部⁴⁸⁾ 等으로 分類하여 診斷에 應用하고 있으며 中醫臨床手冊에는 腹痛의 範圍를 胃脘之下 臍之四旁 毛際之上¹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近世에 와서 姚香雄²⁵⁾은 上腹痛은 急性胃炎·胃潰瘍·胃酸過多·胃癌 等에서 發하고, 下腹痛은 疝症·腸狹窄症·子宮或子宮周圍炎·子宮外孕·膀胱炎·腎或腎膀胱結石·腸粘膜發炎 等에서 發하고, 右腹痛은 膽石症·膽囊炎·闌尾炎 等에서 發生한다고 한 것을 볼 때 腹痛을 診斷과 治療함에 있어 發生部位別 病理은 臨床上 매우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著者는 韓醫學文獻에 나타난 腹痛의 發生 部位를 胃脘 및 臍上·臍下·臍兩脇 腸胃之間 膜原之下 其他 等으로 區分하여 病理을 살피고자 本研究를 시도하였다.

II. 本 論

1. 胃 脘

1) 黃帝內經^{37, 38)}

- ① 食不下者 胃脘隔也 (評熱病論)
- ② 木鬱之發 胃脘當心而痛 (六元正紀大論)

- ③ 厥陰司天 風淫所勝 胃脘當心而痛 上支 兩脅高咽 不通 飲食不下 腹脹 (至真要大論)
- ④ 厥陰之勝 胃脘如寒 胃脘當心而痛 (至真要大論)
- ⑤ 胃脹者 腹滿 胃脘痛 (脹論)
- ⑥ 足太陰之脈 是動則 胃脘痛 心下急痛 (經脈篇)

2) 偏鵠心書⁹⁾

凡痛 非心痛 乃 心之包絡痛 與脾痛胃痛膈痛

3) 巢元方¹⁷⁾

心痛者 其正經 不可傷 傷之而痛 僞真心痛 朝發夕死 夕發朝死

4) 朱震亨⁴²⁾

- ① 心痛 卽 胃脘痛
- ② 心痛死血 留於 胃口作痛
- ③ 胃脘有濕而痛

5) 嚴用和²⁰⁾

真心痛 厥心痛 此皆 邪氣乘于 心支別絡也

6) 方賢¹⁰⁾

心之包絡 與 胃口 相應. 往往 脾痛連心或 陽虛陰厥 亦冷心下急痛.

7) 虞天民²⁶⁾

胃脘痛 俗乎 胃心痛 詳其所由皆在 胃脘而 實不在於心也

- 8) 李梴³⁰⁾
胃脘 胃痛乃 內傷飲食 腹脹 便閉 嘔吐 瀕
瀕 胃脘當心而痛 脾臟 連心而痛.
- 9) 龔延賢⁸⁾
心痛 卽 胃脘痛 心痛 初起者 胃中有寒也
心痛少久者 胃中有鬱熱也
- 10) 張介賓³²⁾
① 上焦者 痛在膈上 此 卽 胃脘痛也 內經 曰
胃脘當心而痛者 卽 此
② 胃脘痛證 多有因食 因寒 因氣不順者
- 11) 張隱庵³⁷⁾
① 胃脘痛者 木剋土也 (五常正大論註)
② 胃脘正當脘間 (腹中論註)
③ 胃脘者 中焦之分 主化 水穀之精氣 以資養
五臟 者也 (陰陽別論註)
④ 飲食不下 膈寒不通 邪在胃脘 (陰陽別論註)
⑤ 胃脘咽噎 飲食不下 木勝而土像也 (六元正
紀大論註)
- 12) 許浚⁶⁾
心痛與 胃脘痛 病因不同 七情心痛 食積
胃脘痛 痰飲胃脘痛 瘀血胃脘痛
- 13) 李中梓²⁹⁾
胃脘在心之下 胸痛在心之上
- 14) 陳修園⁴⁵⁾
心痛者 皆 心包絡 及 胃脘痛也
- 15) 吳謙²¹⁾
心痛 胸下 胃脘當臍脾 下連胃脘如 胃心痛
連臍名 脾心痛 連腰名腎心痛 連小腸 名大
腸 小腸痛 連脇 名 肝心痛
- 16) 林珮琴³¹⁾
胃脘痛 胃脘當心下 症與心痛 相似 但胃脘
痛 必見 胃經本病
- 17) 周命新⁵⁾
心痛者 胃脘痛也 總謂 心痛 非指真心痛也
- 18) 張錫純³⁶⁾
胃脘痛悶 本南方人 久居北方 常起優思
- 19) 謝觀¹²⁾
胃脘 胃之 內腔也
- 20) 程國彭⁴¹⁾
真心痛 胃近時之 心臟冠狀動脈栓塞症
- 21) 類經圖翼²⁴⁾, 靈素集註節要⁴⁴⁾
心有四系 以通 四臟 四臟 皆系於心 (圖 I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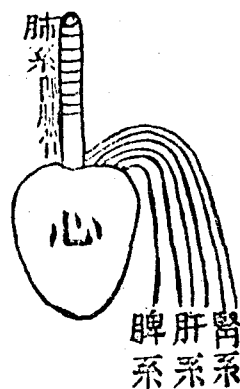


圖 I. 心有四系 以通四臟

22) 逃走難經²⁴⁾，靈素集註節要⁴⁴⁾
藏府形狀之圖 (圖 II 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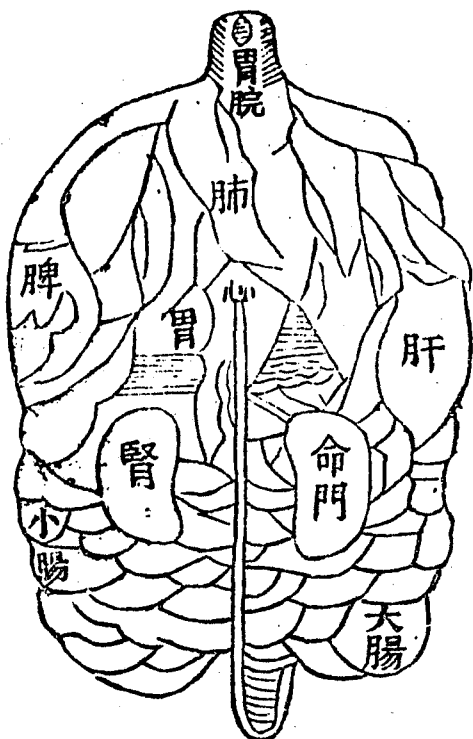


圖 II. 腸腑形狀之圖

2. 臍上 臍下 臍兩脇

1) 黃帝內經³⁷⁾

- ① 腎病者虛則 胸中痛 大腹小腹痛 肝病者 兩脇下 痛引小腹 (藏氣法時論)
- ② 環臍而痛 病名伏梁 (腹中論)
- ③ 肝病 腰脊小腹痛 腎病小腹痛腰脊痛 脾病 小腹痛 腰脊痛 (標本病傳論)
- ④ 歲金太過 燥金流行 肝木受邪 民病 兩脇下 小腹痛 歲土太過 雨濕流行 腎水受邪 民病 腹痛 (氣交變大論)
- ⑤ 膽 足少陽之脈 是動則 心脇痛 (經脈篇)
- ⑥ 肝脹者 脇下滿而痛引小腹 小腹痛者小腹痛 脹引腰而痛 (脹論)

2) 難經²⁴⁾

十六難曰 得肝脈 其內證 臍左有動氣 按之牢若痛 得心脈 其內證 臍上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煩心 心痛，得脾脈 其內證 臍有動氣 按之牢若痛 得肺脈 其內證 臍右有動氣 按之牢若痛 得腎脈 其內證 臍下有動氣 按之牢若痛 騎兵逆氣 小腹急痛。

3) 金匱要略^{39, 40)}

- ① 淋之偽病 小便如栗狀 小腹弦急 痛引臍中
- ② 腸癰者 小腹腫痞 按之則痛

4) 中藏經⁴⁷⁾

肝實則 引兩脇下痛 引小腹

5) 巢元方¹⁷⁾

胸脇痛者 由 膽與肝 乃 腎之支脈虛偽 實氣所乘故也

6) 劉河間²⁷⁾

脾風傳腎一名 產氣 小腹痛 足厥陰之脈 環陰器抵 小腹腫或痛

7) 李東垣²⁸⁾

腹痛有部分 中脘痛 太陰也 臍腹痛 小陰也 小腹痛 厥陰也

8) 李中梓²⁹⁾

腹痛分爲三部 臍以上痛者 爲太陰脾 當臍而痛者 爲少陰腎 小腹痛者 厥陰肝

9) 李梴³⁰⁾

大腹痛多食積外邪 臍腹痛 多 積熱痰火 小腹痛 多 瘀血及痰與濕菴

10) 張隱庵³⁷⁾

大小腹作痛 乃 腎藏之病 土勝而 水傷也 (家交變大論註)

11) 王肯堂²²⁾

妊娠 小腹痛者 由 胞絡虛 風寒相搏痛甚產後小腹痛 俗名 兒枕痛 兒枕者 由母胎中宿有血塊

12) 張介賓²⁾

上腹痛者 有上中下 三焦久別 上焦者 痛在膈上 此即 胃脘痛也，中焦痛者 在中脘 脾胃間病也，下焦痛者 在臍下 肝腎 大小腸 膀胱病也，蟲痛痲痛 多在中焦 火筒則 三焦俱有之 血統則 多在下焦

13) 張璐玉³⁵⁾

小腹痛 滿 有三 小腹正中為 小陰任衝之分野 兩傍為 厥陰 肝經之分也 一屬 躁結大腸 一屬熱結 膀胱 一屬血結膀胱

14) 陳修園^{43, 46)}

- ① 臍下痛 人乃 少陰水腸 虛寒 太陽水附虛寒
- ② 小腹痛兩旁 謂之少腹 少腹痛 乃厥陰肝經之部又為 胸中之血海 砲中之水 主於少陰 砲中之血主於厥陰也
- ③ 兩旁季脅痛者 肝氣虛也
- ④ 兩脅 上痛者 少陽之氣 不和也
- ⑤ 臍上居太陰 中臍屬少陰 臍下屬厥陰 兩脇屬少陽

15) 徐靈胎^{14, 15)}

臍左 肝左之位也 臍上 心之位也 當臍脾位乎中也 臍右 肺之位也 臍下 腎之位也

16) 葉天士¹⁶⁾

- ① 大腹痛者 即 心腹痛也 為有寒邪 食積 屬太陰
- ② 小腹痛者 即 臍腹痛也 為有熱邪 燥屎 屬少陰
- ③ 小腹痛者 即 臍以下 丹田血痛 為有瘀血 結熱 屬厥陰

17) 林珮琴³¹⁾

中脘屬太陰 小腹左右 屬厥陰 臍腹正中 屬少陰 衝任

18) 康命吉¹⁾

臍上 曰 大腹 屬太陰 臍下曰 小腹 屬厥陰 臍曰臍腹屬小陰

19) 黃道淵⁷⁾

衝脈起於氣衝 竝足陽明少陰之間 挾臍左右 各五分上行

20) 中醫內科學³⁾

- ① 少腹兩脇屬厥陰經 屬肝膽經
- ② 少腹臍周屬少陰經 屬小腸腎膀胱的病
- ③ 中脘屬 太陰經 屬脾胃病

21) 中醫臨床手冊¹⁸⁾

痛在臍上 屬胃病 痛在當臍屬脾與大腸痛在臍下 少腹屬肝

3. 腸胃之間 膜原之下

1) 黃帝內經³⁷⁾

寒氣客於 腸胃之間 膜原之下 血不得散 小絡急引 故痛(舉痛論)

2) 巢元方¹⁷⁾

腹痛者 有府藏虛 寒冷之氣 客於 腸胃 膜原之間蘊

3) 王冰²³⁾

膜謂層間之膜 愚謂 鬲胃之原

4) 李梴³⁰⁾

寒氣 客小腸 募原之間 即 血氣 凝聚成積

5) 張介賓³³⁾

膜筋膜也 原盲之原也 腸胃之間 膜原之下 皆有空虛之處

6) 張隱庵³⁷⁾

膜原者 連于 腸胃之 脂膜 亦氣分之 膜理

7) 內徑講義¹¹⁾

膜原 胸膜腔內 盲膜之原系.

8) 權輿植²⁾

腸間膜, 腸間膜根

4. 其他 部位

1) 黃帝內經³⁸⁾

荏脈之別 實則 腹皮痛 (經脈篇)

2) 楊士瀛¹⁹⁾

肚皮痛者 腎虛不能行水 加之酒麵無度 水 滲於肚皮而作痛義

Ⅲ. 考 察

文獻에 나타난 腹痛의 部位를 胃脘, 濟를 中心으로 膈上·膈下·膈·兩脇·膈爲之間·膜原之下 그리고 其他 部位로서 腹皮 肚皮 等으로 分類하여 各各의 病理를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胃脘痛이란 명칭은 靈樞 經脈篇과 脈論에 最初로 收錄되었으며, 素問 六元正紀大論과 至眞要大論에는 胃脘當心而痛이란 句節이 나오는데 金元代 周辰亨과 明代 龔延賢은 心痛 卽 胃脘痛이라 하였고, 明代 張介賓은 內徑에 나오는 胃脘當心而痛은 바로 胃脘痛을 일컫는 것이라 하여 胃脘痛은 古代 文獻에 실린 心痛의 意味를 상당히 內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狹意의 心痛은 心包絡에 發生하는 眞心痛과 厥心痛을 意味하며 廣意의 心痛은 清代 吳

謙 等에 依하면 膈部에 連하여는 脾心痛, 腰部에 連하여는 腎心痛, 脇部에 連하여는 肝心痛, 小腸에 連하여는 大腸小腸痛을 發生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心痛 中에서 오늘날 心臟冠狀動脈 栓塞症에 該當한다고 하는 眞心痛과 心包絡의 病으로 여겨지는 厥心痛의 들을 除外하면 그 外의 心痛은 대부분 腹痛에 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後世에 許浚 等^{3, 4, 6)}이 六種心痛을 分類하면서 胃心痛의 症狀에 胃脘當心而痛을 收錄한 것은 胃脘痛門으로 따로 分類하든지 腹痛門에 記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思慮 된다.

이러한 混線은 圖 I에서 보듯 心臟이 肝系 腎系 脾系 肺系 等の 四臟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痛症이 擴散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胃脘의 部位에 對하여 張隱庵은 膈間이라 하였고 陰陽別論註에서는 中焦에 屬한다고 하였으며, 張京岳은 膈上에서 痛症이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圖 II를 보면 胃脘이 心臟보다 上部에 있고 胃와도 分離되어 있는 것을 볼 때 胃脘痛은 主로 食道部로 부터 胃의 賁門部에 걸쳐 發生하는 胸膈 및 心下部의 痛을 指稱하는 것으로 思慮된다. 胃脘의 機能에 對하여 素問 評熱病論에는 飲食이 내려가지 않으면 胃脘이 막힌다 하며 消化器에 屬함을 알 수 있다. 胃脘痛의 運氣病理에 對하여 素問 至眞要大論에 依하면 厥陰風木이 盛하여 胃脘當心而痛이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張隱庵은 註에서 木剋土의 原理로 說明하였으니, 胃脘痛은 胃脘의 機能이 衰弱하여지고 氣不順 하면서 飲食이 停滯되어 發生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病因으로서 朱丹溪는 濕을, 張隱庵은 膈寒을 論하였으며, 許浚은 食積 痰飲 瘀血을 形成하면서 發生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胃脘痛에 比하여 多少 下部에 發生하는 腹痛에 對하여는 主로 膈를 中心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于先 素問 臟氣法時論에서는 胸中痛 大腹小腹痛은 腎虛로 나타나며 兩脇下

痛引小腹은 肝病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標本病傳論에서 小腹痛은 肝, 脾, 腎, 小腸 等の 臟腑病理에 配屬시켰으며 腹中論에서는 環臍而痛을 論하였다. 그러므로 內徑에서는 胸中痛 大腹小腹痛 環臍而痛 兩脇下痛 等 發生部位別로 腹痛을 區分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難經 十六難에는 臍를 中心으로 臍部和 臍의 上下左右로 나누어 腹疹 上의 痛感이 發하는 것을 五臟脈의 內證과 연관시켰다.

金元代의 李東垣은 中脘 臍腹 小腹으로 三分하였고, 明代의 李梴은 臍를 中心으로 臍上部를 中脘 또는 大腹이라 하고 臍下部는 小腹이라 한 데 비하여 景岳은 中脘을 中心으로 臍上과 臍下로 區分하였으며, 葉天士는 臍上을 大腹이라 한 점은 같으나 臍部를 小腹이라 하고 臍以下 丹田穴을 小腹이라 한 것이 特異한 點이라 볼 수 있다.

臍를 中心으로 各 部位別 病因을 살펴보면 臍上은 主로 寒邪와 食積으로 臍部는 熱邪, 燥尿, 痰火로 臍下는 瘀血, 結熱, 濕滯, 痰 등으로 因하여 發生하고 있다. 또한 經絡病理로써 臍上에 對하여 難經에는 心, 李東垣 等^{1, 16, 28, 29, 31}은 太陰脾, 中醫臨床手冊에는 胃로 配屬 시켰다. 臍下에 對하여 難經에는 腎, 李東垣 等은 厥陰肝에 配屬시켰다. 그러나 景岳은 肝 腎 大小腸 膀胱을 配屬시켰고, 陳修園은 胞를 兼하여 論하였다. 臍腹痛에 對하여 李東垣 等은 少陰腎, 難經에는 脾, 林珮琴은 衝任脈, 中醫臨床手冊에는 脾와 大腸을 兼하여 論하였다. 兩脇에 對하여 素問 臟氣法時論에서는 肝病이라 하였으나 漢代 華佗는 肝實이라 하였다. 清代 陳修園은 兩傍季脅部の 痛은 肝氣虛요 兩脅之上痛은 少陽膽의 氣가 不和한 것이라 하였다.

한편 難經 十六難과 徐靈胎가 臍左를 肝으로 臍右를 肺로 論한 것은 素問 刺禁論에 收錄된 肝生於左 肺臟於右라 한 것에서 起源한 것으로 오늘날 밝혀진 解剖學的 位置 보다는 五行

과 관련한 臟腑機能面에 置重한 理論이라고 思慮된다.

腹痛이 發生하는 部位는 上記한 바의 胃脘 臍上 臍下 臍 兩脇 外에도 素問 舉痛論에서는 腸胃之間 膜原之下에 寒氣가 侵入하여 痛이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腸胃之間 膜原之下를 巢元方은 腸胃膜原之間이라 하였고 張介賓은 空虛之處라 하였고 李梴은 小腸募原之間이라 하였다. 膜原에 對하여 王冰은 膜은 髑間之膜이요 原은 髑旨之原이라 하였으며, 張隱庵은 三焦의 元氣가 通會하는 곳이라 하였으니 膜原은 解剖學上 腸間膜에 該當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腸胃之間 膜原之下에 發生하는 痛은 腹部 上의 小絡에 發生하는 經絡病理를 指稱하는 것으로 思慮된다.

其他部位 가운데 靈樞 經脈篇에는 任脈之別이 實하여 發生하는 腹皮痛을 論하였고 直指方에서는 肚皮痛은 腎虛로 因하여 行水가 不可能한 者가 酒麵을 過度하게 攝取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他 文獻에서는 別로 다루어 지고 있지 않았다.

以上을 總括하며 部位別 腹痛의 原理를 간단히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圖 Ⅲ. 部位別 腹痛의 原理

病 因	關聯臟器	五行病理	部位別腹痛
寒濕 食積 痰飲 瘀血	食道噴門	木剋土	胃脘痛 (胸膈心下)
食積 寒邪 蟲痰	脾 胃		臍上痛
燥, 熱 血結	腎 膀胱 大腸	土勝水	臍下痛

積熱 燥屎 痰火	脾, 腎 大腸小腸		臍痛
寒氣 燥盛	肝 膽 胃 大腸	金剋木	兩脇痛
血氣凝 聚積	小腸		腸胃之間 膜原之下痛

N. 結 論

腹痛에 대하여 胃脘, 臍上, 臍下, 臍, 兩脇, 그리고 腸胃之間 膜原之下 등 發生 部位別로 分類하여 各各의 病理를 考察하여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胃脘痛은 飲食을 攝取한 後 氣不順으로 因하여 胸膈 및 心下에 位置하고, 食道에서 噴門에 이르는 胃脘部位가 寒濕하여 지거나 食積 痰飲 瘀血을 形成하면서 痛症이 發生하는것으로서 心痛으로 自覺되지만 消化器疾患이며 內徑에서는 厥陰風木이 盛할 때 發生한다 하여 木剋土의 原理로 說明될 수 있다.
2. 臍上部 腹痛은 中脘痛 大腹痛 中焦痛 등으로 일컬어 지는데 그 原因은 食積 寒邪 蟲痰으로서 太陰經에 屬하는 脾胃間病이고, 臍下部의 腹痛은 小腹痛 下焦痛 少腹痛 등으로 일컬어 지는데 小腹을 다시 二分하면 正中은 少陰腎과 任衝脈 兩傍은 厥陰肝經에 屬하며 그 原因은 燥結大腸 熱結膀胱 血結膀胱 胞絡虛 等이며 아울러 腎 膀胱의 虛寒으로 發生하므로 이는 土勝水의 原理로 說明될 수 있다.
3. 臍部의 腹痛은 臍腹痛, 環臍而痛 小腹臍周痛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積熱 燥屎

痰火로 因하며 發生하는 脾胃大小腸 衝任脈의 病이고, 兩脇部의 痛은 兩脇下小腹痛 兩傍季脅痛 兩脅之上痛 等으로 일컬어 지는데 肝膽腎의 支脈이 虛하고 寒氣가 乘하여 發生하는 것과 陽明燥金이 盛하여 金剋木하므로 發生하는 肝經脈의 病으로 說明될 수 있다.

4. 腸胃之間 膜原之下의 腹痛은 小腸膜原之間 空虛之處의 痛으로 일컬어 지는데 臟腑가 虛하여 寒冷之氣가 侵犯했을 때 三焦의 元氣가 通會하는 小絡部位에 血氣가 凝聚되어 積을 形成하면서 發生하는 것으로 思慮되며, 其他部位 가운데 두皮痛은 腎虛하여 行水가 잘되지 않은 者가 酒麵을 過食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以上과 같이 腹痛의 發生部位別 病理는 腹部에 流注하는 脾經 胃經 腎經 肝經 膽經 任脈 等의 經絡과 腹腔內에 存在하는 大小腸 膀胱 胞 等의 臟腑에 發生하는 運氣의 變化過程으로 說明될 수 있다고 思慮된다.

參 考 文 獻

1.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p 142 1975.
2. 權興植 : 人體解剖學(Ⅱ), 서울, 壽文社, p72, 80, 1973.
3. 柳基遠編 : 脾系內科, 서울, 書苑堂, p45 46, 1986.
4. 張仁圭編 : 東醫消化器內科學, 서울, 科學教育社, p44, 1985.
5. 周明新編 :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p231, 1971.
6.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262, 264, 265, 1976.
7. 黃道淵 : 醫宗損益(上), 서울, 醫藥社, p261, 266, 1976.
8. 龔延賢 :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卷

- 下, p42, 1972.
9. 寶材撰：扁鵲心書, 서울, 杏林書院, p 54 1972.
 10. 方賢：奇效良方, (圖書集成醫部全錄),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7冊 p631, 1979.
 11. 北京中醫學院主編：內經講義, 香港, 醫藥衛生出版社, p271, 1978.
 12. 謝觀：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p478, 1975.
 13. 上海中醫學院：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p50, 51, 1977.
 14. 徐靈胎：難經經譯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五洲出版社, 卷一 p13, 1969.
 15. 徐靈胎：女科醫案,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五洲出版社, 卷四 p209, 1969.
 16. 葉天士：醫效秘傳, 香港, 太平書局, p53 1975.
 17. 巢元方：諸病源候總論, 台北, 國立醫學研究所, 卷十六 p1, 10, 1964.
 18. 安徽中醫學院編：中醫臨床手冊, 香港, 商務印書館, p78, 1975.
 19. 揚士瀛：仁濟直指方, 서울, 東醫社, p79 1978.
 20. 嚴用和：濟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53, 54, 1980.
 21. 吳謙等編：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第二分冊 卷四十二 p105, 1978.
 22. 王肯堂：女科證治準繩, 藝文印書館, p391
 23. 王冰註：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p104, 1974.
 24. 王叔和：校正圖註難經, 서울, 醫道韓國社 卷一 p7, 卷三 p2, 1976.
 25. 姚香雄：症狀鑑別手冊, 九龍, 協和醫藥出版社, p162, 168, 174.
 26. 虞天民：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p346, 347, 1973.
 27. 劉河間：傷寒三六書, (圖書集成醫部全錄),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7冊 p618, 1979.
 28. 李東垣：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出版社, p292, 1983. 29.
 29. 李中梓：醫宗必讀, 上海, 衛生出版社, p294, 295, 1957.
 30. 李梴：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p370, 371, 1979.
 31. 林珮琴：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p412, 421, 1980.
 32. 張介賓：景岳全書,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p437, 439, 1980.
 33. 張介賓：張氏類經, 서울, 書苑堂, p373, 1977.
 34. 張介賓：張氏類經圖翼, 서울, 書苑堂, p79, 1977.
 35. 張璠玉：張氏醫通, 台北, 金藏書局, p211 1976.
 36. 張錫純：醫學衷中參西錄, 香港, 商務印書館, p723, 1975.
 37. 張隱庵 馬元台註：黃帝內經 素問, 서울, 成輔社, p68, 71, 113, 114, 185, 187, 248, 279 285, 286, 443, 444, 556, 588, 657, 680, 684, 1975.
 38. 張隱庵 馬元台註：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p91, 133, 264, 1975.
 39. 張仲景：金匱要略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44, 1978.
 40. 張仲景：仲景全書, 서울, 杏林出版社, p384, 1978.
 41. 程國彭：醫學心悟, 台北, 旋風出版社, p158, 1970.
 42. 朱震亨：丹溪心法 (圖書集成醫部全錄),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7冊 p623, 624, 625, 1979.

43. 陳修園：時方妙用（陳修園醫書五十種），台北，新文豐出版公司，卷二 p11, 12, 1978.
44. 陳修園：靈素集註節要，（陳修園醫書五十種），台北，新文豐出版公司，卷三 p4, 1978.
45. 陳修園：醫學三字經，（陳修園醫書五十種），台北，新文豐出版公司，卷一 p14,15 1978.
46. 陳修園：醫學從來錄，（陳修園醫書五十種），台北，新文豐出版公司，卷三 p7, 8, 1978.
47. 華佗：中藏經，台北，自由出版社，p15
48. 八田善之進 蘆田光二：打診과 聽診，서울, 연우, p46, 1980.
49. Mahlon H Delp, MD. & Robert T Mannin, MD. : Major's physical Diagnosis, W.B. Saunders Company, Philadelphia, 8:549, 1975.

A B S T R A C T

The investigation of literature about the pathology of a stomachache according to the part of falling ill.

Han, gyu eon
dep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dong kuk university.

Review of literature on stomachache. According to investigated the pathology of a stomachache about all sorts of falling ill, I have been obtained following conclusions.

1. The cause of Ui Wan Tong are clod-wet-ui wan, sik juk, dam eum, a huyl be made of gi bul soon (氣不順).
2. Pain of Je sang bu are called jung wan tong, dae bok tong, jung cho tong, cause are sik juk, han sa, chung juk.
pain of je ha bu are called so bok tong, hache tong, soh bok tong, so bok are devided two part, one is so eum sin the other is gul eum gan, cause are jo gyul dae jang, yul gyul bang kwang, huyl gyul bang kwang, porak hu ect.
3. Pain of je bu are called je bok tong, hwan je e tong, so bok je ju tong, and cause are juk yul, jo si, dam hwa.
Pain of yang hyup bu are called yang hyup ha so bok tong, yang bang ge hyup tong, yang hup jisang tong, cause are han gi, yang nyung jo geom.

According to above results, the patholosy of a stomach ache about the part of falling ill in a course of transformation on the epidemic fever comes into the viscera.